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 동 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요약》

본 연구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인 당사자 5명으로부터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의 중심의미는 <시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일상 속 관계에서의 모습>, <일상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에서의 갈등>,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 <희망적인 삶의 추구>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서 지속적인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농, 농인, 일상생활, 현상학적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장애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더욱 장애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상도 긍정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장애에 불리한 사회적인 환경과 구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 본 논문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13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 연구비 지원을 통해 진행된 것임.

** 제1저자, 교신저자(wookana@hanmail.net)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한, 배제, 소외, 차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휴먼 서비스 실천분야-예를 들면 재활,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에서는 장애인의 전체 삶에 대한 관심과 탐구보다는 장애로 인한 일부 특정사항에 많은 관심을 쏟았고, 탐구하였다. 정형화된 장애라는 틀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도와 접근들이 많아지면서 정작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인은 누구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을 간과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와 접근들이 계속 되고, 또 심화된다는 것은 장애인은 삶의 주체로서 서 있기 보다는 계속 서비스의 객체, 사회의 객체로서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과 관련 있는 학문분야에서는 장애가 가진 특정한 사건,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저해하며, 이로 인하여 장애 및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날 사회학 분야에서는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일상생활 사회학’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주목받는 사회학의 한 분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박재환, 1984; 최재현, 1985; 강수택, 1995; 강수택, 1998; 장원순, 2004; 김상우, 2006; 박재환, 2007).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일상생활은 말 그대로 매일의 생활을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갖가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도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매일의 생활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일한 과업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변화가 없는 반복적 과정이어서 자칫 진부하고 지루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것은 진부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풍토로 인하여 점차 특별하고 특정한 사건, 현상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며, 이것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소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 이러한 특정한 사건, 현상은 ‘일상생활’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특정한 사건,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일상생활에 관한 장애영역에서의 연구는 다소 진행된 바 있다(김정자, 2008; 김소영, 송병호, 2010; 김미옥, 김고은, 2010; 최영순 외, 2011). 그러나, 일상생활 사회학에서 지향하는 그 일상생활은 아니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영역에서의 접근은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기능의 문제를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입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장애인의 진정한 일상생활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상생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였던 장애의 결손, 제한, 배제, 소외, 배제 등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장애인을 인간답게 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며, 이러한 이해가 굳건하게 바로 설 때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인식개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농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인은 독특하게도 많은 장애영역 중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수화를 말한다. 수화는 오랜 세월동안 언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1960년대 Stokoe가 미국수화의 언어성을 밝힌 이래로 오늘 날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수화가 언어학적 특성을 지닌 언어로서 인정되고 있다(원성옥, 2013; 홍성은, 2013).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런 경우 농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농사회(Deaf community)를 이루며, 그 안에서 농문화(Deaf culture)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강주해, 2002; 이준우, 2003; 김경진, 2007; 김병하 외, 2009; Padden, 1998; Woodward & Allen, 1990). 수화라는 언어를 모르면 농사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농문화를 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런 만큼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은 더욱 고유한 농인의 색깔을 드러나게 한다. “과연 이러한 독특한 배경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농인들은 도대체 어떤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가 바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이다.

장애인은 전 생애를 치료와 재활만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치료와 재활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료와 재활도 전체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며, 치료와 재활의 목적도 이른바 정상화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그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장애의 일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날 파편화된 접근이 아닌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 학문적 흐름과, 장애인들의 인간다움과 권리신장을 주장하고 있는 장애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농인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농인의 일상생활은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단순히 시간상의 구성이 아니라 주관적 의미의 생활세계에서의 일상생활 구조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일상생활이론

일상생활은 우리가 매일 매일을 반복하면서 지내는 삶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취침, 식사, 출근, 청소 등과 같이 늘 반복되는 경험은 물론이고 결혼 등의 의례, 취직, 퇴직, 여가 등 시간간격을 가지고 관례화되는 경험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사회제도 및 문화규범이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이 사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의 각 수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일상적인 구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윤택림, 1996). 이것은 일상생활 세계에서 경험되는 현상이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김춘택, 2012). 즉 개인은 진공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사회 맥락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은 구성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은 사회와 동떨어져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사회상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깊게 탐구하게 되면 결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의 인간의 활동, 생활양식은 무의식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이것들에 숨어있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그것의 현재적 쟁점을 성찰하는 것이 주요한 논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생활이론이란 일상생활과 관련된 논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의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일상

생활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최재현(1985)은 일상생활이론을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실천적으로 몰입되어있는 사회성원이면 누구나 구성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과학에서 일상생활과 일상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온 이유는 양적인 실증적 연구 방법의 한계와 조직, 구조, 제도를 연구하는 거대이론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춘택, 2012).

일상생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이론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학, 맑스주의적 전통이론 등이 그것이다(강수택, 1994; 윤택림, 1995).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갖게 되는 다양한 반응들에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Cooley, Thomas, Mead가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현상학은 Husserl이 주창한 ‘현상학’을 Schutz가 더욱 체계화시킴으로써 발전하였다. Husserl이 “일상생활 세계가 모든 논리자 모든 학문의 의미 토대”라는 주장이후에 Schutz가 사회적 맥락 하에서 일상생활에 대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Schutz는 사회적 현실을 사물들 자체의 존재론적 구조보다는 인간의 정서적이고 활동적인 생활관계 속에서 파악하였으며 결국에 현실은 개인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의미들로 된다고 하였다(박재환, 일상성·일상문화연구회, 2008). 맑스주의적 전통의 이론은 Lefebvre가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인데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소외라고 특징지으면서 일상생활의 소외에 대한 비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다(박재환, 일상성, 일상문화연구회, 2008). 또한 일상을 다루는 것은 일상성을 생산하는 사회를 규정짓는 것이라고 하여 사회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는 일상생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맥락에서보다는 일상생활 활동 또는 기능 등에 초점을 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것은 일상생활 세계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 사회학’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수택(1994)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비교하였으며, 김상우(2006)은 사회에서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천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은 필수적일 것을 주장하면서 일상생활의 사회학과 한국에서의 이것에 연구를 촉구하였다. 조한혜정(2006)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논의를 생활과학분야에 접목하여 생활과학대학의 역사성과 일상성, 식민성을 통해 생활과학분야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지금까지 무관심에 대해서 반성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한 깊이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장애인의 일상생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일상생활 자체에 관심보다는 장애인의 제한, 배제, 소외, 차별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 의존, 일상생활 능력, 일상생활 기능 등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자(2008)는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 수행력과 인지능력이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소영, 송병호(2010)는 취학 전 자폐성장애 아동에게 무게감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이것이 일상생활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또한 취학 전 자폐성장애 아동이 어떠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일상생활 활동력과 그 수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최영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동작,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우울 및 고립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일상생활의 동작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일상생활 자체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김미옥, 김고은(2010)의 연구에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생활시간 연구 방법 중 시간수지연구 방법 중 '활동의 빈도'와 생활시간 중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 중 최초로 장애인의 특정 사항(특히 장애인의 신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비교적 선행연구들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적장애 성인의 생활시간 중 활동의 빈도, 시간의 길이 등이 어떠한지만 파악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이전 선행연구에서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을 뿐, 지적장애 성인의 일상생활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이해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풍토 가운데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농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장윤영, 정호영(2010)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청각장애를 견지하고 수화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등을 통하여 삶의 실재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경자(2012)는 농민의 언어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내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농민들의 삶의 실재를 탐구하고 이를 통하여 농민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외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학문적인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수행한 연구들을 소수이지만 찾아볼 수 있었다. Rosen et al(2012)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질적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Jackson(2011)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장애, 정체성, 직업을 중심으로 밝혀내는 연구를 하였다. 국외연구의 경우에도 국내연구와 같이 아직은 일상생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금씩 이를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장애인의 활동능력, 기능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들인 것에는 동의하나,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특정 사항에 대한 관심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보다는 과편화된 이해를 야기시키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능력 및 기능상에 대한 초점화된 관심은 장애인의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기존의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간상의 일상생활 모습이 아닌 주관적 의미에서의 생활세계라는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농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보이는 일상생활 모습에 숨겨진 특성을 밝혀내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이다(신경림, 2003). 현상학자들은 인간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대표적인 초기 현상학자인 Husserl은 현상학은 본질적 불변구조(또는 본질)또는 경험의 중심적 기저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남인, 2005).

본 연구에서는 Giorgi식 방법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Giorgi식 방법

은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서 상황적 구조적 전술에서 참여자의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며,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일반적 구조적 전술에서 통합한다고 밝히고 있다(김분한 외, 1999). 그리하여 연구 참여자 중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연구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계획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20~30대 연령층의 농 성인의 일상생활이다. 20~30대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사회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을 통해 농인의 일상생활을 탐구한다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의 제한상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는 접근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초기 접근으로서 이를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 주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풍부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질적연구의 유의적 표집방법 중 집중 표집은 현상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집중 사례들을 표집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현상의 집중 사례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다.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농인 당사자여야 그것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의 사고와 정서, 행동을 언어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누구나 자신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

을 직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그 의식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이며 대화는 언어로 매개된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연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고와 정서를 언어로 전환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 여기서 언어는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셋째,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로서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이며, 어쩌면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고 사유하여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자발적인 의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총 6명을 선정하였다. 6명으로 선정하면서 3명은 남성, 다른 3명은 여성으로 성별 비율을 맞추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의 지역적 배경은 연구자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또한 가능한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군,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진행과정 상 연구 참여자 6명 중 1명이 중도 탈락되어 최종적으로는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5명으로부터 충실히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5명이며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 처한 농인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모두 청각장애 2급의 청력을 갖고 있고 모두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었다. 농인 집단의 한정적인 집단범위, 다소 폐쇄적인 성격이라는 특성상 최소의 정보를 가지고도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쉬울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였음을 밝힌다.

연구 참여자 1은 현재 만 29세로 유치원 때는 서울소재 농학교에 재학하였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재학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특수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공립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구화이며 미혼이다. 연구 참여자 2는 현재 만 39세로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 소재 농학교에 재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해오고 있다. 구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현재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이며 기혼이다. 연구 참여자 3은 현재 만 22세로 유치원 때부터 서울 소재 농학교에 재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2013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구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이며 미혼이다. 연구 참여자 4는 현재 만 39세로 유치원 때부터 서울 소재 농학교에 재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현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교에도 재학하고 있다. 구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이며 이혼한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 5는 현재 만 38세로 유치원 때부터 서울 소재 농학교에 재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로 재직하고 있다. 구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이며 기혼이다.

이들 중 연구 참여자 1은 다른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구화만을 주되게 사용하는데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여 주로 수화를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선정하였다.

4)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대한 선(先)이해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를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를 연구 도구로 활용한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연구 도구인 연구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선이해를 파악하고 이것이 연구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선이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문화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교 강의통역, 지역사회 통역 등 수화통역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자가 갖고 있는 선이해와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판단들을 지속적으로 반성노트를 작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연구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들은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중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보충적으로 함께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비교하기를 통하여 지나친 논리비약적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우연성, 그리고 다원적 상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최종혁, 2009).

참여관찰은 2013년 4월부터 8월초까지 주 1회, 평균 2시간씩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 연구 참여자의 활동에 동행 등을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그들의 발화, 행동, 태도 등에 관하여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수집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총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3회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의 경우 회당 1시간 ~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각 3회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참고하여 직접 수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화로 진행하였다. 1회차 심층인터뷰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2회차, 3회차로 진행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인터뷰 장소는 서울 소재 스튜디오 등 연구 참여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장소를 대여하여 일대일 면접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사람 및 주변환경으로부터 방해되지 않도록 창문 등이 불투명 처리가 된 독립된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모든 과정을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촬영된 영상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모두 문자형태로 전사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과 함께 녹음된 소리를 듣고 모두 문자형태로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촬영된 영상과 여러 번 비교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여 정확성을 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질적연구 및 장애분야 전문가에게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타당성을 기하였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방법론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 경험이 연구 참여 과정과 연구종료 후에도 계속 지속되므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최우선시 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 수집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최우선시하였으므로 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로 인하여 경험할 수도 있는 부정적 결과, 연구의 활용범위에 대하여 연구 참여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여 이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연구 참여자가 확인하고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고 언제든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발표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인 Giorgi식 방법(1985)을 기본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래에 제시한 Giorgi식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Giorgi식 방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전체 인식 단계, 두 번째, 심리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중점을 둔 의미 단위를 구별해내는 단계,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일상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 네 번째,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다.

질적연구방법론에 따른 분석은 자료 수집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집된 자료가 생생한 상태에서 바로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연구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술의 내용을 비교적 온전히 분석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적절한 수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1차 분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차 분석작업이 완료된 후 2차, 3차 분석작업 순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8) 연구의 엄격성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엄격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시각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것과 관련하여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 입각하여 이를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하였다(신경림, 2003 재인용).

IV. 연구 결과

연구계획에 따라 실행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인의 일상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청인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농인이라는 존재로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며, 농인의 삶과 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것의 중심의미는 <시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일상 속 관계에서의 모습>, <일상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생활환경에서의 갈등>,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 <희망적인 삶의 추구>로 도출되었다.

1. 시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1) 시각을 통한 인식

농인들은 시각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시각을 통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화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 수화표현들을 문자화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닌 수화로 표현된 이미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농인이 구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데 입모양 자체를 시각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농인에게 있어서 청각을 사용하는 대신에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에 인식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로써 인식한 내용들을 정보로써 획득한다. 이는 인식의 정확성과는 무관하게 농인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고 습득되었다.

2) 시각적인 의사소통

시각적인 의사소통은 농인이 시각을 통해 인식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도 시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화 자체가 시각적인 운동체계인 언어이기는 하지만 수화가 아닌 다른 표현들을 할 때에도 이러한 시각적인 의사소통은 이루어졌다. 수화표현 외에 다양한 바디랭귀지를 구사하였으며 운동경기를 할 때도 축구의 경우 심판의 호루라기 대신에 깃발을 들어 심판신호를 전달하고, 패스 등의 축구

경기 중 신호의 경우에도 손을 흔들며 나타내는 등 청각적인 신호를 대신하여 시각적인 신호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청인들과의 만남에서 불편함으로 작용하는데 농인들이 밥을 먹을 때 내는 소리, 대화할 때 무심코 내는 입에서의 소리 등에 대하여 농인들끼리 있을 때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청인들과 함께 있을 때 청인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인식하게 된다. 그 때는 행동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인지하지 않고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간의 의사전달이 이루어졌다.

2. 일상 속 관계에서의 모습

1) 동질적인 집단으로부터의 친밀감

동질적인 집단은 농인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별히 농인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가 있는지는 크게 상관있지 않는다. 자신과 같은 농인이라 하더라도 동질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의사소통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와 수용이 수반되어야 했다. 농인은 기본적으로 수화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같은 농인들과 친밀감을 나타냈다. 자신과 같은 농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모두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였던 학교동료들에게서 많은 경우 친밀감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들은 농학교에 재학한 경우 유치부 또는 초등부 시절부터 고등부 시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동료끼리 큰 변함없이 학교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수화라는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서로에 대한 정보들을 통하여 동질감과 그를 넘어선 친밀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같은 농인으로부터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는 또한 농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행동습관을 목격할 때이다. 예를 들어 농인이 주변을 자주 두리번 두리번 하는 행동 등을 하는 것을 목격할 때이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인은 농인에 대하여 이해와 수용을 하는 청인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는 그 청인이 수화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인이 농인 자신과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이 다르더라도 농인 자신이 이들로부터 이해와 수용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그 청인에게 친밀감을 갖게 된다. 반면에 농인 자신과 같은 농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친밀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이라 함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 여부가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한 농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말한다.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인과의 의사소통 경험은 농인으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지 않게 하였다. 가족관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이해와 수용을 받는 농인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친밀감을 나타냈다. 농인이 가족들과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이해와 수용을 받고 있다는 가족분위기에서는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2) 이질적인 집단으로부터의 불편함

이질적인 집단은 청인뿐만 아니라 같은 농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청인에는 특히 가족구성원들도 포함되는데 자신과의 경계가 느껴지는 상대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거리감을 갖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주저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해와 수용이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농인 당사자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가족구성원과의 심리정서적 거리감은 컸다. 심리정서적 거리감이 크다는 것은 농인 당사자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태도와 행동도 위축되게 만들었으며, 농인 당사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상처를 갖게 하였다. 가족들이 농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농인을 가족 내부의 참여, 결정 등에 있어서 배제하고 외부인에게 농인의 존재를 숨기려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심리정서적 거리감을 더욱 심하게 나타냈다. 이것은 농인 당사자가 이질적인 집단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은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이다. 특히 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성언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말의 뉘앙스, 분위기 등을 농인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농인은 청인들로부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농인 당사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주위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인은 그들과 이질적이라고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상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1)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

일상생활 속에서 농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려움들에 대하여 대처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농인은 자신에게 어려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대처하고 조금씩 해결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농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갖기 시작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은 농인이 사회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여 대처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 1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매뉴얼로 만들었다. 농인 자신에게 맞는 업무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된 노하우와 자신이 맡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의 자문을 얻어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그는 이를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용해나가면서 효율화를 도모하는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여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4의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여러 가지 차별, 소외, 배제, 무시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바리스타 교육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학습하였다. 그녀는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가운데에서도 관련전문서적을 탐독하여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실습을 하는 행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나갔으며 이에 따라 전문능력을 습득해나갔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여 실제적인 성과들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어려움들에 대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행동이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게 만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자신의 다름이 드러남

농인이 경험하는 자신의 다름이 드러나는 것은 우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농인이 나타내는 작은 행동도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 농인들은 농인들이 모여있는 공간(농학교, 농교회 등)에서 수화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자신이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그 공간을 벗어나 일반사회 속에 위치할 때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농인들이 대다수의 청인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농인이 손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청인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상이하다. 이는 이들이 청인들과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게 하며, 농인이 무엇인가 다른 존재로 구분 짓게 한다.

농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다름이 드러날 때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이

것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자신의 다름이 드러날 때에 농인 자신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농정체성(Deaf identity)과도 관련성이 있다. 농정체성은 자신이 농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농사회(Deaf community)와 일체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농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농인의 경우 자신의 다름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인식한다. 이는 농인이 수화를 사용함으로써 청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를 매개로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농문화(Deaf culture)라고 말할 수 있는 농인 생활상의 독특성이라는 부분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농인이 사람을 부를 때 상대방의 등이나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한다거나, 상대의 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청인들과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청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발생하게도 하지만, 농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농인은 이것을 농문화 관점에서 청인에게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농인이 수화 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를 통하여 상황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농인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나, 이 또한 농인이 청인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청인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켰으며, 농인들은 이러한 청인의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그것은 청각장애에 대한 낮은 이해를 가진 청인들이 농인의 그 다른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청인이 농인의 수화를 볼 때, 이를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마치 '이상한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을 쳐다보는 것이다. 모든 청인의 수화에 대한 시선이 '이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청인이 실제로 그러한 시선으로 농인의 수화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인들은 과거에 유사한 경험들을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인이 수화하는 것을 청인이 쳐다볼 때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농인이 농인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대우를 받은 과거 경험들을 생각나게 하였다. 특히 농인은 청인들의 자신에 대한 시선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청인이 농인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본 것보다는 농인이 과거에 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 이러한 반응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평상시에 농인이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은 장소에서 농인들끼리 수화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청인들이 쳐다볼 때, 주로 농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청인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청인의 모든 시선이 농인에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농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청인의 농인에 대한 시선은 농인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에서

농인들은 청인의 시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그 공간에서는 청인의 시선이 일정시간 이상 농인에게 머무를 수 있으므로, 농인이 그 시선을 무시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인의 경험은 매일 매일 반복되면서 평소에는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3) 상대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의 이미지

농인은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청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약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농인의 경우에 특히 많이 나타났다. 주위 사람들이 농인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청각장애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인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농인 자신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 가장 컸다. 또한 이들이 농인이라는 이유로 농인을 배려했던 부분들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인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위 사람로부터 자신의 장애를 과장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농인이 상대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농인이 상대의 입모양을 보고 어렴풋이 상대방의 말을 알아맞힌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 주위 사람들은 농인이 어느 정도 듣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듣지 못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오해한다.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농인에게 지적하며 비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농인은 오해에 의해 주위 사람로부터 지적과 질책, 비난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반응을 겪게 된다. 이러한 농인의 경험은 한 두 번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농인들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이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예 상대방의 입모양을 알아맞히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행동은 농인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의 배려가 지속됨에 따라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며, 이들이 이것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는 습관처럼 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생활환경에서의 갈등

1) 청각장애에 대한 비친화적인 환경

청각장애에 대한 비친화적인 환경은 농인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친화적인 환경은 우선 물리적인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농인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정작 농인에게 적절한 방식과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먼저 농인들은 수화통역서비스, 또는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인이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려고 하여도 학원에서는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가 오는 것을 제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농인이 수강하려는 학원강좌가 자격증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원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가 농인에 대한 통역을 목적으로 학원의 강좌를 들을 경우, 추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며, 학원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인과 통역사가 학원 담당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이 없고,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후에야 농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었다. 더욱이 학원에서는 농인을 위해서 공식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즉 통역사에 대한 사례비용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려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농인의 자부담으로 전가한 것이다. 설사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인이 학원강좌를 수강하게 되고 통역사로부터 통역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농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농인의 주위 사람들은 농인에게 지나친 특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농인이 학원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강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 주위 사람들은 더욱 심화된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농인이라는 이유로 과장되어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농인이 처한 업무환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농인이 업무수행 시 참여하게 되는 회의의 경우, 농인은 회의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회의내용을 거의 전달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과정에서 적절한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회의와 관련하여 당초 농인에 대한 공식적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담당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절차의 어려움이 존재함은 물론, 지원인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제약조건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업무환경에서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농인을 위한 지원인력을 섭외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동료인 다른 사람의 수고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농인은 청인동료에게 문자통역을 매번 요청해야 하는데 이는 농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며, 그 동료에게 매우 미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더욱이 청인동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청인동료입장에서는

농인동료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농인은 회의 시 청인동료에게 통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회의참여와 관련해서도 농인은 피상적으로 회의내용을 알아들어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으며, 회의가 끝난 후 동료에게 회의내용 요약본을 요청하여 전달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는 농인이 회의참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큰 제약사항이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인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농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농인들은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 머리를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주위 상황을 살펴보아야 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최근에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에 자막을 통하여 안내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에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인들이 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인은 더욱 긴장된 상태로 주위 상황을 확인하면서 지내야 했다. 더욱이 이는 농인이 평상시에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농인에게는 오랜 시간동안 습관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긴장된 상태로 주위 상황을 확인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

2) 청각장애에 대한 낮은 이해

청각장애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수준이 낮고, 이러한 현상이 전 사회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인이 이들로부터 적절한 배려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었다. 농인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농인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많은 경우 농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사람들이 농인을 불쌍하다고 여긴다거나 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는 시선들이 농인에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자신과 같은 농인에게서도 느끼고 있으며, 수화를 배우는 청인 학생에게도 느껴지고 있었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서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여 수업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교수 또는 강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농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과 발언들을 하는 것을 농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경험하고 있었다. 농인이 수업시간에 수화통역사를 통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농인과 수화통역사가 수업 중 “딴 짓”을 한다고 생각하여 지적을 하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농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원인력을 제공 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농인이 그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하여도 청인들은 이를 경청하거나 수용하기 보다는 계속 농인과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인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아오면서 청각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이해로 인하여 경험되고 있는 것이었다. 농인은 자신이 원하는 참여를 하고자 하여도 이들로부터 체지당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농인에 대한 낮은 이해를 빈번히 경험하고 있었다. 더욱이 농인이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거나 자신들이 보기에 부담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농인이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은 특히 농인이 구화를 통하여 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타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농인이 청인을 만나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청인의 입모양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말하는 내용을 알려고 한다. 이것은 농인이 입모양을 통하여 청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농인이 자연스럽게 취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청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인이 자신의 입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거나 입을 계속 쳐다보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럴 경우 농인은 그 대화에서 소외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인은 이러한 청인의 반응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농인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 농인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소외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5.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

1) 기쁨을 경험

농인도 청인과 같이 자신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데 특히 자신이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기쁨을 경험하였다. 농인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험에서 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한다”, “능력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농인은 평소에도 이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써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였다.

2) 소외감을 경험

농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농인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경우에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것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모두 청인부모의 자녀들이었는데,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거의 청인이었다. 이에 따라 농인은 자신이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농인이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가족들과의 대화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빠르게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 빈번히 소외되는 경우를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 4의 경우에는 친척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경우에 어머니가 자신을 친척들에게 보이지 않게 방에 있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제지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농인에게 있어서 가족에게서 소외당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하였다.

농인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학교생활을 한 경우에는 교사에 의해서 수업참여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다. 농인이 쉬는 시간 동안에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경험, 혼자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경험, 수업이 시작된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수업이 시작된 것을 모르고 독서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경험 등은 학교생활에서 소외감을 경험한 예들이다.

농인은 여가생활을 즐길 때에도 소외감을 경험한다. 여가생활 중에서도 소외감을 경험하는데 특히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람을 하려고 할 때 영화에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농인은 소외당했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전 사회적으로 한국영화가 흥행할 때도 농인들은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도 관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농인을 위해서 한글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막이 제공되는 한국영화 편수가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농인이 충분하게 여가를 누리기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농인이 이러한 여가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현재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인은 한국영화를 관람했는지 여부보다는 동일한 시기에 흥행영화를 주제로 동일한 이슈를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다르게 현재 농인을 위한 지원환경이 마련되어있지 못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공감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농인이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농인교회 외에는 많은 경우 수화통역 또는 문자통역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은 자신이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종교기관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을 위한 통역서비스가 있는 곳에 한정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인들이 대다수 다니고 있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농인 교회에만 가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농인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농인은 여기서 소외감을 경험한 것이었다. 이러한 감정은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농인으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게 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어 농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었다.

3) 불안감을 경험

농인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농인이 청각적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말한다. 더욱이 청각장애에 대한 비친화적인 환경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가중되었다. 농인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으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책들은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농인이 잠을 잘 경우에도 진동시계, 진동베개 등의 도구를 이용해 다음 날 아침에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 기상하는 것을 준비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해 놓칠 수 있고 청각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농인 자신이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지 못해 출근시간에 지각하는 경우 자신의 직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봐 우려하는 마음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청인동료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태적인 면에서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 뿐만 아니었다. 농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장구인 보청기는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농인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농인들의 부모가 농인에게 계속 보청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청기를 분실하였을 경우 혼이 내는 등 경험한 것이 하나의 요인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불안은 계속 일상생활에서 농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었으며, 이를 인식을 할 때도 있었고 인식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러한 불안감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다. 그러나 농인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태도를 취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생각을 할 때 이 불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차별감을 경험

차별감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게 되는 경험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장애인과 같이 농인들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해오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여기서 차별이라 함은 청인과는 다른 태도로 이들을 대우를 하는 것인데, 다른 태도는 청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우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은 ‘소외’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의 차별은 ‘소외’ 보다는 더욱 강한 낮은 대우를 말한다.

차별은 청각장애에 대하여 비친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이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낮아 오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인에 대해서 대우를 잘못하는 경우였다. 농인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상황과약을 위해 머리를 두리번 두리번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계속 여러 번 확인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무태만으로 오해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인의 상급자인 청인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농인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근무태만에 따른 불이익을 농인에게 주었다. 농인이 청인상급자에게 반복적으로 해명을 하여도 더욱 강한 지적과 경고를 받았으며, 농인은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중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농인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계속 위축되는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 농인은 이러한 경험 외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 자신이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청각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거절을 빈번히 당하며, 농인이 당연히 적절한 배려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농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아예 배려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빈번히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보니 농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체념을 하게 된다. 이는 단순하게 농인의 취직이라는 한정된 문제를 넘어서 한 개인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농인은 이러한 경험이 빈번히 반복되면서 이에 대해 평소에는 무감각해하다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경험하게 될 때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농인이 학창시절에 교사로부터 “청각장애인데 뭐하러 학교를 다니냐”는 식의 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인은 이를 그 당시에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현재에 이르러서 이에 대해 크게 분노를 나타냈으며, 일반 대중이 아닌 교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일련의 차별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큰 분노를 나타냈다. 이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농인을 무시하고 놀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인의 서툰 국어실력을 보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서 차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이 곧 농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5) 타의에 의해 요구받는 도전

농인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하거나 실천할 때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도전’이라는 것이었다. 농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개의 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자신의 의사에 따른 선택보다는 청각장애에 대한 비친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도전’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의 ‘도전’이 아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농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었다.

농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갈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도전’에 속한다. 특히 농인이 청인들과 함께 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행 자체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농인이 둘 다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 둘 다 실패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농인이 교육을 받을 때 수화통역 또는 문자통역을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농인이 교육상황에서 수화통역 또는 문자통역을 받는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농인 과 함께 모여있게 되고, 자신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와 계속 모여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자신과 같은 교육을 받는 그 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농인이 함께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를 대동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인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하기 원해도 부담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 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농인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심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농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농인이 자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여러 번 의사소통해야 하는 과정이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농인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뜻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농인들로서는 이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제공받아야 하는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농인의 일련의 경험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들이며, 농인에게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6)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배려

농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배려는 청인이 농인에 대하여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태도나 행동들이 농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이와 맞지 않을 경우에 경험하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농인에 대한 배려이지만 농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의한 배려가 아닌 청인에 의한 일방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따른 배려인 것으로 다수 나타났다. 특히 농인이 경험한 이러한 배려의 경우 직장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인이 직장에 취업하여 업무를 배정받은 때 담당자는 농인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적은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농인이 의사소통이 잦은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농인 자신도 힘들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주위사람들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농인은 그 배경에 대하여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장애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농인은 큰 문제가 없으면 수긍하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농인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농인은 소진을 경험하였다. 농인은 자신이 배정받은 업무가 담당자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빈번하고 업무강도가 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에 비친화적인 직장환경에서 농인이 청인에 비해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농인이 이러한 경험에서도 노력하여 얻게 된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농인이 갖게 되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다.

6. 희망적인 삶을 추구

1) 미래에 대한 희망

농인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농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농인 각자가 갖고 있는 희망의 내용과 의미는 다르지만 희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농인의 일상생활에는 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는 농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농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처하고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여 추후에 자신이 꿈꾸는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갈 소망을 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농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인식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농인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었다.

2) 미래를 위한 실천

농인들은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겨서 이루어나가는 모습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교에 진학하여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연구 참여자 4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며, 미래에 할 사업들을 구상하여 이를 단계별로 이루어나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얻고, 관련 정보와 자원들을 수집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실천을 하고 있었다.

농인들의 이러한 실천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농인들은 일상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농인의 일상생활은 비장애인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비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비교를 함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거나 수량적인 개념으로써 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김정자, 2008; 김소영, 송병호, 2010; 최영순 외, 2011). 이것을 통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처해있는 상황이 경제적 수준, 고용상태, 가족관계 등의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관적인 세계관에서 일상생활이 어떠한가를 질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농인의 일상생활의 경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이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 전체 분위기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많으므로(박재환, 2010) 농인들의 일상생활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이해할 수 있다. 농인들은 자신이 위치한 주위 환경(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소외,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농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데 제약사항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윤영, 정호영

(2010)와 고경자(2012)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도 농인들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인한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들은 농인의 언어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것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와 같은 농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 어려움들이 이것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농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적인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수준이라면 외적인 반응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특별히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인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평상시에는 무감각해졌으며 이것이 심화된 상태 또는 의도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외현화 되고 있었다.

또한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농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성 다시 말해서 농문화(Deaf culture)와 관련한 독특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화가 아닌 방법으로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주해(2002), 김경진(2007), 박정란(2010) 등이 밝힌 내용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들 연구과는 달리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비롯한 모든 시각적인 의사소통이 농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인은 이러한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차원의 일상생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농인의 시각적인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이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저해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농인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농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농인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매우 핵심적인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농문화’라고 할 수 있다. 농문화는 농인들이 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오면서 축적한 경험의 산물이며 이것은 농인들의 일상

생활에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농문화에는 농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이것들이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면화되며 이것의 핵심 특성인 일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개인의 성격형성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농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는 청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관심을 갖거나 특정한 부분(수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농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30대 농인 5명을 대상으로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 구조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가 농인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를 전체 농인의 일상생활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풍부한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농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따라 한정적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충분히 다양한 상황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풍부한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도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충실히 자료를 제공받아 가능한 한 농인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정된 기간 동안 농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한정된 기간 동안 얻게 되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농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농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 (1994). 일상생활 이론의 비교연구: 사회학적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8, 85-115.
- 강수택 (1998).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3), 503-529.
- 강주해 (2002).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고경자 (2012). 농인의 언어와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8, 105-126.
- 김경진 (2007).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미옥, 김고은 (2010). 거주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일상에 관한 연구 -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일상생활활동과 상호작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1), 317-342.
- 김병하, 박경란, 이정옥 (2009). Deaf Culture and Deaf Studies: The Phenomena and Issues in south Korea.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203-223.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6-1220.
- 김상우 (2006).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문화와 사회**, 1, 91-122.
- 김소영, 송병호 (2010). 무게감 있는 조끼의 착용이 취학 전 자폐성 아동의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 **자폐성장애연구**, 10(1), 143-161.
- 김정자 (2008).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 수행력과 인지능력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김춘택 (2012). 1920년대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2, 95-126.
- 박경란 (2010). 농인의 수화사용경험과 수화통역서비스이용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93-122.
- 박재환 (1984).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사회과학논총**, 3(1), 241-258.
- 박재환 (2007). 문화사회학과 일상생활사회학. **문화와 사회**, 3(2), 263-273.
- 박재환 (2010). "현대한국인의 생활원리",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경기: 도서출판 한울.
-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경기: 도서출판 한울.
- 신경림 (2003).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설계. **간호학탐구**, 12(1), 49-68.
- 윤택림 (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 윤택림 (2002).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노동운동의 의미: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7, 33-62.
- 원성옥 (2013).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 **새국어생활**, 23(2), 19-42.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 이준우 (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수**

- 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4), 173-204.
- 장원순 (2004). 사회문화교육방법으로서의 ‘일상생활’ 분석. **사회과 교육**, 43(4), 167-187.
- 장운영, 정호영 (2010). 농인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소리세계의 이방인에서 수화로 소통하는 소수집단의 주체로 가능성 찾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515-543.
- 조한혜정 (2006). 생활과학,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성: 식민지적 근대화와 ‘일상’ 을 지운 학문을 넘어서기. **대한가정학회지**, 44(8), 143-150.
- 최영순, 김현리, 김영희, 임재란 (2011). 장애인 의 일상생활동작,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우울 및 고립감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14(1), 5-12.
- 최종혁 (2009). **질적연구방법론: 현상학적 자기평가론**. 서울: 양서원.
- 최재현 (1985). 일상생활의 이론과 노동자의 의식세계. **한국사회학**, 19, 111-129.
- 홍성은 (2013). 국외 수화 언어학 연구 동향. **새국어생활**, 23(2), 88-99.
- Asaba, E., & Jackson, J. (2011). Social Ideologies Embedded in Everyday Life: A Narrative Analysis about Disability, Identities, and Occup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18(2), 139-152.
- Blach Rossen, C., Sorensen, B., & Wurtz Jochumsen, B. (2012). Everyday life for users of electric wheelchairs –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7(5), 399-407.
- Giorgi A. (1985).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2004). 서울: 현문사.
- Padden, C. (1998), From the cultural the bicultural: the modern Deaf community, In I. Paransnis(Ed.),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and the deaf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ward, J., & Allen. (1990), Classroom use of Arificial Sign System by Teachers, *Sign Language Studies*, 61, 405-4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perience of Everyday Life for the Deaf Persons

Park, Dong J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everyday life for the Deaf person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answers with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is experience of everyday life for the Deaf persons”.

For this research, experience of everyday life data were provided from 5 Deaf person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tudy results showed the deduced central meaning of experience of everyday life for the Deaf persons including <world which is composed of time>, <images of relationships in everyday life>, <awareness about ourselves in everyday life>, <conflicts in living environment>, <emotions experienced in everyday life>, <pursuit of hopeful life>.

Based on these results, consistent academic discussions should be made about experience of Everyday life for the Deaf persons and comprehensive and deep approaches should be also made about their experience of everyday life.

Key Words : Deaf, Deaf Persons, Everyday Life,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 2014. 02. 01 심사 시작: 2014. 02. 07 게재 확정: 2014. 03. 15